

나노섬유형 의료기기 상용화 본격

전북대 중재연구센터, 중기부 기술이전사업 일환으로 추진... 3년간 연구개발 나서

전북대학교 중재적 메카노 바이오 기술융합 센터(센터장 박찬희)가 나노섬유형 의료기기 상용화에 본격 돌입했다.

24일 전북대에 따르면 이 사업은 중소벤처기업부 기술이전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나노섬유형 의료기기 상용화를 위한 생체적합성 소재 및 제조 혁신 의료디바이스 개발' 과제로, 센터는 향후 3년간 나노섬유 지혈소재 및 휴대용 전기방사 의료기기 개발에 나설 계획이다.

특히 화재나 교통사고 등 응급 의료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나노섬유 기반의 지혈소재와, 이를 환부에 직접 접 방식할 수 있는 휴대형 전기방사



전북대학교 중재적 메카노 바이오 기술융합 센터가 나노섬유형 의료기기 상용화에 본격 돌입했다. <사진=전북대학교 제공>

디바이스 개발을 핵심 목표로 하고 있다.

앞서 센터는 지난 6월 11일 연구에

참여하는 컨소시엄 구성원들과 함께 킥오프 미팅을 통해 제품 기술 구현 가능성, 임상 현장 적용성, 생물학적

안전성 및 전기안전성 평가 등 다양한 기술적 사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연구센터는 열가소성 및 열경화성 고분자 생체재료의 나노섬유화와 대량 생산이 가능한 독보적인 제조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또 국내 기업과 공동 개발한 4등급 흡수성 뇌경막 대응제 제품을 식약처 허가를 통해 시장에 출시한 경험이 있어 이번 나노섬유 상용화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양오봉 총장은 "이번 사업은 대한민국 의료기기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는 발판이 될 것"이라며 "긴밀한 산학협력을 통해 전북의 차세대 의료기기 산업 생태계 조성과 지역 전략사업 고도화를 이뤄내겠다"고 밝혔다. /장은성 기자

전북교육청, 27일 대입

수시 진학지도 역량강화 연수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오는 27일 창조미래 시청각실에서 고3 담임교사 및 진학부장을 대상으로 대입 수시 진학지도 역량강화 연수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날 오후 7시부터 2시간가량 진행되는 연수에는 360여 명의 교사가 사전 접수를 마쳤을 정도로 호응도가 높았다.

강사로는 EBS 입시정보 대표강사인 김진석(소명여자고등학교) 교사가 참여한다.

김 교사는 '고 3 담임교사를 위한 대입정보 안내'라는 강의를 통해 고3 담임교사가 알아야 할 대입 수시 지원전략 등을 상세히 안내할 예정이다.

한편 전북교육청은 연수에 참석하지 못한 교사를 위해 연수 1주일 뒤 유튜브 브 전북교육 대입정보 TV에 동영상상을 탑재할 계획이다. /장은성 기자

태권도 품새 국가대표

우석대서 합동훈련 돌입

'2025 라인투르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참가를 앞둔 대한민국 태권도 품새 국가대표 선수단이 지난 23일부터 우석대학교 태권도학과에서 합동훈련을 시작했다. 이에 따르면 지도자 3명과 남자선수 5명, 여자선수 5명 등 총 13명으로 구성된 국가대표 선수단은 내달 10일까지 본고 태권도 품새단과 함께 집중 훈련을 이어갈 예정이다.

이번 합동훈련은 개인전과 혼성전, 단체전 등 다양한 품새 종목에 대비한 전략 훈련을 중심으로 진행되며, 대학과 국가대표 간 실전 감각 공유 및 기술 교류의 장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국가대표 선수단은 이번 세계대회에서 금메달 5개 획득을 목표로 훈련에 매진하고 있다.

박노준 총장은 "이번 합동훈련이 선수들의 실력 향상과 자신감을 높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전주대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생성형 AI 활용 직무 매칭 캠프

전주대학교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는 지난 23~24일 1박 2일간 담양 호텔드몽드에서 '생성형 AI를 활용한 직무 매칭 캠프'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캠프는 생성형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해 학생들이 자신의 성향과 강점을 기반으로 적합한 직무를 탐색하고, 진로 방향을 설정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참가자들은 ChatGPT, Gemini, Claude 등 최신 AI 도구를 직접 활용하며, 직무 정보 수집과 분석, 자기이해 활동, 직무-개인 매칭 실습 등 팀별로 수행했다.

교육 내용은 △생성형 AI의 개념 이해와 정보탐색 실습 △희망 직무 정의 및 요구 역량 분석 △개인 성향 기반 적합 직무탐색 △직무 매칭 결과 팀 발표 등으로 구성됐다. /장은성 기자



24일 열린 '생명산업 중심 대학 글로벌대학30 통합 원광대학교 출범 선포식'.

‘생명산업 글로벌 거점대학’ 도약 선언

원광대·원광보건대 '통합 원광대학교' 출범 선포식

원광대학교(총장 박성태)와 원광보건대학교(총장 백준출)는 24일 '생명산업 중심 대학 글로벌대학30 통합 원광대학교 출범 선포식'을 열고, 양 대학의 통합과 미래 비전을 공식 선언했다.

이날 선포식에는 교직원과 학생, 양교 총동문회장 등 300여명이 참석해 통합의 의미와 향후 발전 방향을 공유했다.

통합 원광대학교는 2024년 글로벌대학30 사업 통합모델 선정 이후 통합추진위원회를 중심으로 행정·학사·조직구조 개편과 구성원 의견 수렴, 지역사회 협력 강화 등 단계적 준비를 거쳐, 지난 4월 교육부의 최종 통합 승인을 받았다.

이에 따라 2026학년도부터 통합 원광대학교로 신입생을 모집하며, 국내 최

초로 4년제 일반학사 과정과 2년제 전문학사 과정을 동시에 운영하는 혁신적 모델을 선보인다.

'생명산업 글로벌 거점대학'을 비전으로 의료·보건 분야 강점과 농생명·바이오 특성과 역량을 결합해 '건강하게 살고(의생명)', '안전하게 먹고(농생명)', '행복하게 누리는(생명서비스)' 생명기초과학 및 바이오 융합 산업을 아우르는 지·산·학·병·연 복합 교육체계를 구축한다.

전체 입학정원의 60% 이상을 생명산업 분야에 배치하고, RISE(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사업과 연계해 지역사회와 산업계가 필요로 하는 실용 인재 양성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통합은 교육부 '고등교육 혁신특화지역' 지정(교육부 고시 제 2025-167호)에 따른 제도적 특례가 적

용된 최초 사례로, 전문학사 과정 병행 운영이 가능해 원광보건대의 전문대학 교육 강점과 원광대 연구·교육 역량이 융합됐다.

향후 통합 원광대는 △3개 생명융합 대학 중심 학사 구조 재편 △5개 광역계열 개편 및 무학과 선발 △전문학사에서 학사로 연계되는 유연한 편입 제도 운영 등 학사제도 혁신에 나선다.

또 전북바이오융합전문대학원(JABA)과 연계한 연구·개발·사업화 일체형 교육모델과 산학협력, 지역사회 연계 프로그램을 통해 실질적 성과 창출에 주력할 방침이다.

대학 구성원과 지역사회, 산업계가 함께 참여하는 소통과 협력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민주적이고 투명한 의사결정과 구성원 참여, 지역사회 상생협력을 바탕으로 '생명산업 글로벌 거점대학' 위상을 공고히 할 계획이다. /익산=이재춘 기자

전쟁 속 우정 되새기다 | 전북대동창회, 6·25 참전국 유학생에 장학금

전북대학교 총동창회(회장 최병선)는 24일 전주의 한 음식점에서 캐나다·에티오피아·러시아 출신 유학생 3명을 초청해 '6.25 한국전쟁 참전국 유학생 장학금 수여식'을 열고, 100만 원씩의 장학금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날 장학금을 받은 이들은 의류학과 김소연(캐나다), 국제학부 안데마리아브룩타윌파울로스(에티오피아), 경영학과 신알렉산드르(러시아) 학생 등이다.

앞서 전북대 총동창회는 지난해 20명의 6.25 지원국 유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전달한 것을 시작으로 매년 장학금 전달해오고 있다.

특히 참전용사 후손들이 전북대를 졸업할 때까지 매년 장학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이날 수여식에는 최병선 총동창회장을 비롯해 양오봉 총장, 정종인 부총장, 학장, 대학 주요 보직자, 동창회 임원 등이 참석했다.

장학금을 받은 학생들은 모두 한국전쟁 당시 참전하거나 물자를 지원한 국가에서 유학 온 학부생들로, 그 중 러시아 출신 장학생은 고려인 후손으



전북대학교 총동창회는 24일 전주의 한 음식점에서 캐나다·에티오피아·러시아 출신 유학생 3명을 초청해 '6.25 한국전쟁 참전국 유학생 장학금 수여식'을 열고, 100만 원씩의 장학금을 전달했다.

로 역사적 의미를 더했다.

최병선 회장은 "70여 년 전 위기의 대한민국을 위해 도움을 손길을 내밀었던 국가들의 용기와 희생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 안 된다"며 "이번 장학금이 단순한 금전적 지원을 넘어 우리 대학이 전하는 감사와 우정의 상징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양오봉 총장은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대한민국의 자유와 평화를 위해 헌신한 이들 국가와의 소중한 인연을 되새길 수 있는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

며 "참전국 학생들에게 자긍심을 심어주고, 우리 대학과의 인연이 각국과의 우정으로 이어지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날 장학금을 받은 윌파울로스(에티오피아) 학생은 "미처 생각지 못한 장학금에 놀라움과 감동을 느꼈다"며 "이 장학금은 한국과 에티오피아가 함께한 역사적 순간에 대한 특별한 선물이다. 전북대에서 더 열심히 공부해 그 뜻에 보답하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장은성 기자

일상 속 사례와 함께 풀어내는 협상

전북대 김성진 교수, '상대의 마음을 훔치는 협상' 출간

전북대학교 김성진 교수(법학전문대학원)가 협상의 본질을 일상 속 다양한 사례와 함께 풀어낸 실전 전략서 '상대의 마음을 훔치는 협상'을 출간했다.

이에 따르면 협상은 특정 전문가의 영역이 아니라 누구에게나 필요한 인간관계의 기술이라고 저자는 강조한다. 갓난아이의 울음부터 부부의 대화, 연인 간의 설득, 직장 내 협력, 외교의 최전선까지 삶의 거의 모든 순간에 협상이 개입돼 있다는 것이다.

이 책은 이러한 협상을 단순한 거래가 아닌, '상대의 마음을 훔치는 기술'로 정의하며, 그 핵심 원칙과 전략을 11개 장에 걸쳐 소개하고 있다.

특히 김 교수는 노동변호사 출신으로서 오랜 협상 경험을 갖추고 있으며, 현재 로스쿨에서 '법률가와 협상'이라는 과목을 운영 중이다.

이 책에서는 전통적인 협상 이론과 전략에 심리학적 연구를 더해 설득력 있게 구성했으며, 실제 교수와 학생 간의 생생한 협상 사례도 다수 포함돼 실용성과 몰입도를 높였다.

내용은 △협상의 목적 설정, △



최고의 제안법, △상대 탐구법, △실패 형성, △심리 기반의 설득기술 등 총 10가지 실전 협상 전략을 중심으로 구성됐다. 특히 '상대의 감정을 다루는 방법', '실패를 쌓는 4단계', '상대를 움직이게 하는 10가지 심리법칙', '기준 설정과 활용', '제3안 도출' 등은 협상 초심자뿐 아니라 경영자·교사·공직자 등 실무자에게도 유용한 전략으로 평가받는다.

김성진 교수는 "협상은 피할 수 없지만 협상을 통해 돌파할 수 있다"며 "이 책을 통해 타인의 마음을 얻고, 나아가 자신이 원하는 결과를 얻는 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내년 교육 예산편성 도민 의견 수렴

전북교육청, 오늘부터 8월 22일까지 의견 접수·인터넷 설문 진행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이 2026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을 위한 도민 의견수렴에 나섰다.

24일 전북교육청에 따르면 교육재정 운용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6월 25일부터 8월 22일까지 '예산편성 의견 접수 및 인터넷 설문조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예산편성 의견서 제출분야는 내년도 예산편성을 희망하는 교육사업 전반으로 도내 전체 학교에 적용할 수 있는 사업이다.

특히 사업설정 특혜 논란 등을 없애고자 지난해부터 대상 및 심사 기준을 '특정 학교가 아닌 전체 전북교육을 위한 재정 수반 정책'으로 명확히 했다.

이에 학생, 학부모, 교직원을 비롯해 전북도민 누구나 전북교육청 누리집(민원·참여/주민참여예산제/예산편성 의견제안) 또는 우편·FAX·방문

등 다양한 방법으로 참여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예산편성을 위한 설문조사도 병행할 예정이다.

설문은 총 20문항으로 예산편성에 대한 학생 참여 확대를 위해 학생 대상 설문조사도 신설됐다.

설문에서는 2026년 본예산 편성시 전북교육청 10대 핵심과제 등 우선투자 대상 사업과, 각 정책별로 가장 필요한 사업이 무엇인지에 대해 도민 의견을 듣는다.

참여는 QR코드 또는 온라인(<https://ksurv.kr/akM30T080T0>)으로 접속하면 된다.

이상곤 예산과장은 "예산편성 과정에 교육수요자와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전북교육에 대한 만족도를 높여 나가겠다"며 "교육사업과 관련한 의견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제안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장은성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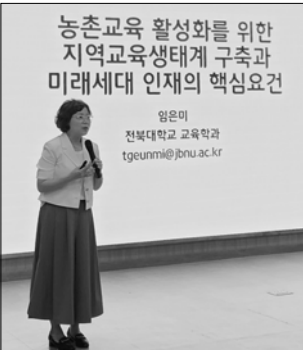
2025 부안교육 정책 포럼

'2025 부안교육 정책 포럼'이 24일 부안교육지원청 시청각실에서 열렸다. 이날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에 따르면 지역과함께자문위원회와 부안교육지원청이 주관한 포럼은 부안교육 현안과 미래교육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것으로 교직원, 학부모, 지역주민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먼저, 기조 발제로 임은미 전북대학교 교수가 '농촌지역교육 활성화를 위한 지역교육생태계 구축과 미래세대 인재의 핵심요건'을 주제로 지역 특성을 살린 맞춤형 교육과정의 중요성과 학교-지역사회 연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진 1부 패널토론에서는 △지역과 연계한 학교교육과정 지원사업(부안교육청 오명연 장학사) △지역인재 육성을 위한 교육협력사업(부안군청 최정애 과장) △지속가능한 학교 교육방안(계화중 김명희 교사) 등을 주제로 부안교육의 현안을 논의했다.

2부 토론에서는 △올바른 진로진학대안 모색(백산고 강성길 운영위원장) △세대와 마을을 잇는 글로벌 인재육성(청자골 사회적 협동조합 박연미 대표) △공동체 회복과 교육(부안청년정책협의체 유수정 위원장) 등 미래세대를 위한 교육 대안에 대해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포럼에 참석한 교육공동체 구성원들은 부안만의 특색을 살린 창의적 교육방안과 지역사회와의 연대를 통한 지속가능한 발전의 필요성에 공감하며, 앞으로도 현장 중심의 논의와 협력을 이어가기로 뜻을 모았다.

이미경 지역과함께자문위원회 위원장은 "이번 포럼은 민·관·학이 협력해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내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며 "현장의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모두의 지혜를 모아달라"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부안=김석진 기자